

# “이제는 파면이다”...광주·전남 시민사회, 헌재 탄핵 인용 촉구

### ‘광주비상행동’ 매주 토요일 5·18민주광장서 시민총회길 진행 전국 비상행동 단체들과 연계 국힘 의원 지역별 퇴출 운동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광주시민사회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들은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시민단체도 각각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제히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1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총회길 진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며, 전국 비상행동 단체들과 연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퇴출운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 비상행동은 “헌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윤석열의 탄핵을 최대한 빨리 인용해야 한다”며 “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입법·행정·사법부에 뿌리박고 있는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법단체 오월3단체(5·18 유공자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영령들의 정

신을 잊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윤석열은 명백히 드러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히려 도리어 큰소리치고, 국민들에게 맞서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헌재와 내란 수괴가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특정 권력에 휘둘리는 하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탄핵 절차를 지연 없이 신속히 처리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농민들은 ‘윤석열 체포결사대’를 꾸리고 트럭 11대를 끌고 나와 광주·전남 지역 국민의힘 당사를 향의 방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로 구성된 윤석열 체포결사대(단체)는 이날 무안군 일로읍 전남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나주시 빛가람동 국민의힘 전남도당,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지를 행진했다.

단체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폭정을 일으키던 윤석열의 직무가 드디어 정지됐다”고 환영하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모두 체포·구속하고 내란공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6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 내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가결 후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범인 국민의힘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방조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은 윤석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입법되지 못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단체는 같은 날 경남 진주에서 출발한 ‘동군’과 19일 충남 공주에서 합류한 후 21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향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김건희 영화 ‘퍼스트레이디’ 윤석열 탄핵가결에 관심 집중

### 광주 누적 매출액 전국 4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룬 영화 ‘퍼스트레이디’의 광주 누적 매출액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16일 기준 ‘퍼스트레이디’ 영화의 광주 누적 매출액은 전국 누적 매출액의 7.2% (2300여만원)에 달했다.

서울(32.6%)과 경기(23.1%), 인천(7.6%) 등 수도권에 이어 가장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6.9%), 대전(5.1%), 전북(4.2%) 순으로 뒤이었다.

지난 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 영화는 다큐멘터리영화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부터 무속인 관련설, 대통령실과 공관 이전 논란, 사문서 위조와 주가조작 연루 사건,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날 기준 ‘퍼스트레이디’는 전국박스오피스 순위 5위에 올랐다. 전국 누적 관객수는 3만 3145명, 매출액은 3억 2600여만원이다. 영화 상영 스크린 수는 경기도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21곳), 인천(9곳), 광주(7곳), 강원(6곳) 순이다. 전남에서는 상영하는 영화관이 없다.

광주의 누적 관객수는 2343명(점유율 7.1%)으로, 서울(1만 770명·32.5%), 경기(7623명·23.0%), 인천(2460명·7.4%), 부산 2354명(7.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계엄령 해제·윤 탄핵’ SNS가 국민참여 도왔다

### 유튜브 등 국회 앞 집결 큰 역할

### 이재명 대표·우원식 의장 월담

### 사진·동영상 화제...中 매체 소개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북돋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월담’ 생중계는 비상 계엄 이후 짧은 시간 내 국민들을 국회 앞으로 모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6일 엑스(X·옛 트위터) 등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세요’라고 말해 바로 달려갔다”며 “이 대표 방송을 보고 뛰어나간 국민들 덕분에 차가 막혀 군인들이 오는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엑스에는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로 국민들에게 국회로 나와줄 것을 요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월담을 해 국회로 들어가 투표했기 때문에 계엄령 해제가 이뤄졌다”, “함강인 이재명 한 손 월담, 67세 우원식 월담” 등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구독자 113만명을 보유한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한 월담은 중국 매체에서도 화제가 됐다.

국민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사이다’ 발언을 이어간 의원들에게 후원으로 보답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의원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등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방송된 점도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계엄 해제 이를 만

인 지난 6일 박선원 의원과 수방사·특전사를 향한 방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광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의 인터뷰를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 이들의 ‘계엄군 동원’ 증언을 이끌어 내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특히 부승찬 의원이 HID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담은 ‘숫푼’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김병주 의원과 부승찬 의원의 후원금 모금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전 엑스에는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후원 계좌번호 등이 적힌 웹자보가 퍼지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 회사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주식회사 레이팅랩스(Rating Labs Co., Ltd)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04-1, 3층 (유동)  
청산인 장성욱

72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신 571-7858	• 오 치 266-7801
	• 용 봉 433-1503	• 무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8001	• 중 영 222-9054
	• 충 창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0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2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용 명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